

전후초기 중국 동북지역 적산처리를 둘러싼 중미소의 갈등*

정형아**

- I. 머리말
- II. 전리품에 관한 중소양국의 논의와 미국의 반응
- III. 소련의 중국 동북지역 공업설비의 반출
- IV. 소련의 중국 동북지역 적산 처리에 대한 중미소의 갈등
- V. 맺음말

국문요약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알타밀약을 통해 소련의 출병조건을 약속하였고, 중국의 장제스는 「중소우호동맹조약」을 통해 밀약의 내용을 대부분 승인하였다. 그러나 중화민국 정부는 알타밀약에는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던 항목인 동북지역의 일본 자산-예를 들면 일본의 괴뢰국인 만주국이 세운 중공업 시설 등에 대해 소련이 마음대로 할 것을 우려하여 소련군이 출병하기 전이 이를 확실히 해 두려고 하였다. 그러나 중소담판에서 소련은 명확한 답을 피했고 대신 중국을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을 것이라며 안심시켰다. 당시 해리먼의 미국정부는 루즈벨트의 친소정책을 계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련의 동북산업설비에 대한 관심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소 강경론자였던 소련주재 미국대사인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4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4S1A5B5A02012799)

**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학술연구교수.

해리먼은 출병한 소련군의 동태를 주시하고 있었다. 동북지역으로 출병한 소련군은 일본에게 항복 받은 후 전리품이라는 명목으로 일본의 중공업자산과 기타 금융자산을 선점하고 독점 반출하였다.

이 상황에 대해서 필자가 주목한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전리품에 대한 해석이다. 중미소 삼국은 모두 전리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달랐다는 것이다. 교전자가 점령지에서 마음대로 취할 수 있는 전리품과 전승국이 공동논의 공동분배하는 전쟁배상이라는 두 가지 의미로 소련과 중미 양국은 서로 다르게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논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소련은 이미 동북지역 일본자산의 80%이상을 반출한 상황이었다. 또 하나 주목한 것은 1946년 초부터 드러나기 시작한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한 미소양국의 갈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문제이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은 1946년 초 트루먼이 루즈벨트의 친소정책을 포기하면서 미소양국의 사상적 대립이 표출되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여 냉전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적어도 동북지역의 적산처리에서 불거진 중미와 소련의 갈등에서 미국의 강경한 태도에는 미국의 문호개방정책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았다. 즉, 해리먼은 미국이 해외로 경제적 팽창을 하기 위해 줄곧 추구하던 문호개방정책이 저촉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고, 트루먼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소련과의 갈등이 시작되었다. 소련은 국가 재건을 위한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전리품을 독점하려고 하면서 양국의 국가 이익이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게 된 것이다. 그래서 적어도 중국 동북지역에서는 1945년의 평화의 균열이 일어나게 된 데에는 이데올로기적 요소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나타난 제국주의적 요소가 더 컸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 : 적산처리, 전리품, 전쟁배상, 국가이익, 제국주의.

I. 머리말

만주라고도 불리는 중국 동북지역은 19세기 말부터 세계열강의 주목을 받아온 지역이다. 청일전쟁 직후 일본은 랴오둥(遼東)을 발판으로 만주로의 진출을 꾀했으나 러, 독, 프 삼국의 간섭으로 좌절되었고, 반면

러시아는 시베리아철도를 부설하면서 만주로의 진출을 계획하였고, 또한 삼국간섭의 결과물로 다롄(大連)을 조차하였다. 그러나 얼마 후 일본은 러일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만주에 있는 러시아의 권익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 때 설립된 남만주철도주식회사(이하 만철)와 관동군은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는데 있어서 핵심 기구가 되었다. 만주사변 이후 일본은 만주국을 세워 만주를 장악하였고, 또 만주산업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 만주를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확장을 하기 위한 기반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1941년 태평양전쟁이 발발할 때까지 일본은 약 미화 100억달러를 투자하였다.¹⁾ 1936년 10월 관동군, 만주국정부, 만철관계자가 주도하여 만든 「만주산업개발 5개년 계획 강요」의 목적은 “유사시에 필요한 자원의 현지개발에 중점을 두고, 또한 가능한 한 국내의 자금지족과 일본의 부족자원 공급을 도모”하는 것이었다.²⁾ 이러한 목적에 근거하여 광공업, 농축산업, 교통통신, 이민 등 각 분야에 걸친 개발정책이 실시되었다. 광공업 분야에서는 병기, 비행기, 자동차, 차량 등의 군수 관계 산업의 확립 뿐 아니라 철, 액체연료, 석탄, 전력 등 기간산업의 개발, “특히 국방상 필요한 철, 액체, 연료개발”이 그 목표가 되었다.³⁾ 그에 따라 만주국의 공업은 군수산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중공업을 중심으로 하여 건립되었다. 비록 전쟁상황과 기술상의 문제로 현실적으로는 생산능력만큼 충분히 생산해 내지 못하고 있었고, 또 그 목적이 군비확충이라는 한계점이 있었지만, 일본의 만주지역 중공업에 대한 자본과 기술투자는 만주 지역을 가히 당시 중국에서 가장 큰 산업지구라고 부를 만한 설비와 규모를 갖추게 하였다.⁴⁾ 각주4)에 제시된 [표1]은 終戰 직전인 1945년 7

- 1) 秦孝儀主編,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七編 戰後中國(一), 臺北: 中國國民黨中央黨史委員會, 1981, 251쪽.
- 2) 오카베 마키오 지음, 최혜주 옮김, 『만주국의 탄생과 유산: 제국일본의 교두보』, 서울: 어문학사, 2014, 107쪽.
- 3) 오카베 마키오 지음, 최혜주 옮김, 『만주국의 탄생과 유산: 제국일본의 교두보』, 107쪽.
- 4) [표1] 1945년 7월말 만주지역 각 중공업 부문의 설비에 따른 생산능력

업종별	1945년 7월 말 생산능력
철강	철광석 8,645,000t, 주철 2,524,000t, 鋼塊 1,330,000t, 鋼材 827,600t
석탄	34,000,000t

월말 각 중공업 부문의 설비에 따른 생산능력을 나타내고 있다. 만주의 산업시설은 일본의 전시 필요에 따라 건설된 공업시설이기는 하나, 그 규모와 생산능력에서 중국 내의 기타 공업시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 이러한 규모의 산업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만주지역이었기 때문에 중국의 국민정부와 중국공산당은 만주지역 선점을 주요 임무로 인식하고 있었고 소련도 이에 대한 기대가 컸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1949년 중국정부는 소련이 「중소우호동맹조약」을 위배하고 중국의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유엔에 제소하였는데, 본문은 그 소련제소안에 기술하고 있는 만주 지역의 일본 자산을 둘러싼 전후 초기 중미소 삼국의 갈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얄타회담의 약속에 따라 소련은 1945년 8월 9일 만주지역으로 출병하여 일본관동군으로부터 항복을 받고 그 지역을 점령하였다. 소련군이 만주에 진주한 후 철군할 때까지 약 9개월의 시간동안 소련은 이전 만주국 시기에 건립된 주요 공업기계와 설비를 반출함으로써 만주지역에 대한 경제적 침탈을 자행하였다는 것이 중국정부의 주장이었다. 즉 소련 제소안의 내용에 따르면, ‘중국 동북지역 공업의 80% 이상은 남만주에 있는데 실제로 어떠한 저항도 없이, 또한 어떠한 손실도 없이 소련은 이

액체연료	오일세일 280,000t
製油	粗油280,000t
경금속	알루미늄10,000t, 마그네슘800t(이에 더하여 알루미늄과 마그네슘은 각각45,000t, 1,800t급 생산설비를 건설 중이었다.)
비철금속	납7000t, 아연300t, 구리3,500t(아연은 4,500t급 설비를 건설 중이었다.)
마그네사이트	935,000t
曹達灰	60,000t
화학비료 (황산암모늄)	240,000t
펄프	126,000t
전력	화력 1,054,000kw, 수력 616,000kw
기계	철도관련(기관차110輛, 소형기관차130輛, 貨車4,300輛), 工作機械부문(工作機械2,800万円, 功 구890万円, 軸受1,500万円), 전기기계부문(전선4,300t, 통신기1,750万円, 기타5,000万円) 산업기계2億円, 자동차부문(車組組 및 製造9,000대, 部品製造1,500万円, 再生修理17,000대)
兵器	발동기200대, 총검120,000정, 경기관총1,000정, 중기관총500정, 박격포500정, 소총30,000정, 小銃實包750만발, 重擲彈筒400문, 砲臺鏡400개, 쌍안경10,000개, 방독면50,000개, 낙하산, 낙중탄환 등

(참고: 山本有造著, 『滿州國經濟史研究』, 名古屋: 名古屋大學出版會, 2003. <表3-13: 滿州國における重要鐵工業部門の設備能力ならびに生産実績>와 <表3-14: 終戰直前の主要鐵工業生産能力および実績>)

것을 점령하였다. 소련군대가 만주에서 반출한 자산은 총 8억 달러 이상이다. 전리품이라는 구실로 만주지역에서 옮겨간 공업자산 외에도, 소련 정부는 철군을 연기하면서 중국정부에 중소 양국이 공동으로 공업과 광업, 민간항공산업 등을 경영하자는 계획을 제출하였는데 이 또한 동북지역 전체 중공업의 80%이상을 차지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⁵⁾ 여기에 덧붙여 이 소련제소안을 발표한 유엔주재 중국대표 장팅푸(蔣廷黻)는 ‘만약 중국정부가 소련의 제의에 대해 양보했다면, 만주 지역은 소련의 식민지로 변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늘 중국 공산당의 통제하에 있는 만주 지역에서 소련의 경제적 의도는 이미 어느 정도 실현되었다. 이런 종류의 제국주의 작태는 시대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며 이는 유엔과 중국과 소련사이의 조약을 깨뜨리는 것’⁶⁾이라고 하였다. 장팅푸의 이 말에서 주목하고 싶은 점은 중국 국민정부가 소련을 유엔에 제소한 주요 원인의 하나로 소련의 만주지역 출병과 출병이후의 공광업 기계와 설비의 반출과 경제합작논의에서 보인 행동은 대체로 제국주의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만주지역은 2차대전이 종결된 직후부터 중소 양국의 전후처리에 관한 논의에서 매우 민감한 지역이었다. 특히 이 시점은 일반적으로 함께 연합국의 위치에 있던 미소양국의 갈등이 이데올로기적으로 해석되어 냉전시기로의 진입이라는 측면에서 고찰되었던 것이 기존 많은 연구자들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본문의 출발점인 중국 국민정부의 소련제소안은 소련을 냉전의 한 축이라는 점보다는 제국주의적 침탈자라는 측면을 더 부각시켜 묘사하고 있다. 물론 중국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그들이 대륙을 상실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 소련에 있다는 원망과 비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만주지역으로 진출한 소련의 행위도 상당부분 논쟁거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문은 이러한 논쟁점들 중에서 경제부문과 관련된 것이 소련의 만주지역 공업시설 반출과 경제합작에 관한 갈등이다. 사실 이 두 가지는 소련이 전후 중국 동북지

5) 秦孝儀 主編,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卷七(下), 臺北:中正文化基金會, 1978, 457-459쪽.

6) 秦孝儀 主編,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卷七(下), 460쪽.

역에 대해 세웠던 핵심구상으로 두 가지 사안이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면의 한계로 인해 본문에서는 우선 이 두 가지 문제 중 공광업 설비 반출과 관련된 논의와 중미소 삼국의 입장을 검토해 보고 경제합작과 관련된 갈등은 다음 연구로 남겨두고자 한다.

II. 전리품에 관한 중소양국의 논의와 미국의 반응

‘전리품’이란 교전자(交戰者)가 점령지 및 전장에서 적법하게 압수하거나 몰수한 적의 물품으로 압수 또는 억류와 동시에 교전국에 소유권 취득의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차대전 종전에 있었던 중소양국의 모스크바 담판과 전후초기 중소양국이 진행했던 협상 중에서, 관심을 두었던 의제의 하나는 전리품문제였다. 1945년 7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중소양국은 알타에서 미소양국이 협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담판을 진행하였는데, 이 때에 「알타협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전리품문제에 대해서도 언급되었다. 1945년 8월 7일 장제스(蔣介石)는 쑹쯔원(宋子文)에게 전문을 보내어 지시하기를, ‘만주지역에 있는 각종 공업기기와 설비는 일본이 중국에 배상해야 하는 전쟁 배상의 일부로 마땅히 모두 중국의 소유로 귀속되어야 하는 것에 관해 소련과 조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명확히 상의하거나 성명으로 발표되어야’한다고 지시하였다.⁷⁾ 이에 쑹쯔원은 8월 7일 저녁에 스탈린(Joseph Stalin)을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였다.

쑹쯔원: 각하는 일본의 전리품을 어찌 처리하시렵니까

스탈린: 포로 한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약간의 빼돌려진 부분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쑹쯔원: 일본 정부와 개인이 만주에서 소유한 재산은 마땅히 우리나라의 전

7) 「蔣主席自重慶致行政院長宋子文指示訂約之前應向蘇聯聲明東北原有各種工業及其機器皆應歸我國所有電」(1945年8月7日), 秦孝儀主編,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三編 戰時外交(二), 臺北: 中國國民黨中央委員會黨史委員會, 1981, 642쪽.

쟁배상 배상금으로 상환되어야 합니다.

스탈린: 이 점은 나중에 다시 논의하기로 합시다. 우리는 중국이 부당한 대우를 받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당연히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일본이 만주에 저장하고 있는 물자, 광산, 전리품은 장차 중국이 처리할 것이고 이는 반드시 토론되어야 할 것입니다.

쑹쯔원: 언제 논의하시겠습니까?

스탈린: 아무 때나 가능합니다.

쑹쯔원: 때를 정하여 논의합시다.

스탈린: 그러지요.⁸⁾

중국정부는 일찍이 1944년 9월 12일 외교부차장 후스지(胡世澤)의 보고를 통해, 소련이 전시 공업에 필요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일본이 만주지역에 세운 산업과 자산들을 참전 대가로 얻고 싶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⁹⁾ 중국은 중소 모스크바 담판 이전에 이미 소련이 만주지역의 적산에 깊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때문에 장제스는 스탈린과 만주지역에 있는 적산처리에 대해서 소련이 출범하기 전에 분명히 해 두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중소)조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를 명확히 논의하거나 성명을 발표하라”고 지시하였던 것이다.¹⁰⁾ 그러나 당시 스탈린은 이 후에 다시 논의하자고 하면서 소련은 중국을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중국에 동정적인 태도를 표했기에 쑹쯔원은 스탈린에게 더 이상의 명확한 답을 요구하지 못하였고 또한 이 문제에 대해 크게 염려하지 않았다. 8월 8일, 쑹쯔원 “일본인이 만주에서 소유하고 있는 산업, 기계, 군수공업을 중국에 대한 배상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 스탈린은 고려해 보고 이 일에 대해 계속 논의하자”고 했다고 본국에 보고하였다.¹¹⁾ 쑹쯔원이 본국에 보고한 바로 그 날, 소련은 일본에

8) 「宋子文, 史達林後階段第一次談話紀錄」(1945年 8月 7日), *Victor S. T. Hoo Files*, Box.2, vol. “Sino-soviet Relation 1945-1946”, p.47 : 王永祥, 『雅爾達密約與中蘇日關係』, 臺北: 東大, 2003, 292쪽에서 재인용.

9) Telegram from Victor Hoo, sep.12, 1944, *Victor S. T. Hoo Files*, Box.4.:王永祥, 『雅爾達密約與中蘇日關係』, 臺北: 東大, 2003, 292쪽에서 재인용.

10) 「蔣主席自重慶致行政院長宋子文指示訂約之前應向蘇聯聲明東北原有各種工業及其機器皆應歸我國所有電」(1945年8月7日), 秦孝儀主編,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三編 戰時外交(二), 642쪽.

선전포고를 하고 즉시 만주지역으로 출병하였음에도 슝쯔원은 스탈린의 말에 나름 긍정적인 답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중국정부도 마찬가지였다. 중국 정부가 만주지역의 적산처리에 그래도 낙관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요인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스스로 철저히 준비함으로써 만주지역을 접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8월 9일 소련이 출병을 시작한 상황에서 장제스는 8월 10일 다시 슝쯔원과 왕세제(王世杰)에게 “실제로서 소련과 중국이 만주지역으로 파견할 행정관원과 경제관원의 수송방식에 대해서 협의하여 결정하고 우리의 충분한 편리를 요청하여 정한 기일이 되었을 때 우리 측 접수관원이 만주지역에 도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¹²⁾ 장제스는 소련이 출병하면서 처리해야 하는 만주지역의 상황에 대해 매우 조심스럽게 빈틈없이 대처하려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미국이 중국을 지지해 줄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모스크바에서 담판을 진행하는 동안 슝쯔원은 담판 진행상황을 줄곧 소련주재 미국대사인 해리먼(W. A. Harriman)과 논의를 하였는데, 해리먼이 오히려 소련의 만주지역 적산에 대한 태도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이다.¹³⁾ 뿐만 아니라 「중소우호동맹조약」을 체결한 직후 슝쯔원이 워싱턴에 가서 미국 대통령 트루먼(Harry S. Truman)을 만났을 때, 트루먼은 슝쯔원에게 배상문제에 관하여 중국은 ‘8년간 항전을 하였고 소련은 일본과 전투한 것이 며칠 뿐이니 일본에 배상을 요구하는데 있어서 마땅히 중국에게 최우선권이 있다’고 말하였고,¹⁴⁾ 또 만주를 포함한 일본의 모든 자산에 대해서는 일본에 의해 고통받은 모든 나라에게 지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¹⁵⁾ 때문에 만주지역 적산처리에 관해서 미국은 중국을 지지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고, 그로 인해 중국은 큰 문제가 없이 처리할

11) 秦孝儀主編,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卷五(下), 783쪽.

12) 秦孝儀主編,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卷五(下), 783쪽.

13) W. A. Harriman and E. Abel, *Special Envoy to Churchill and Stalin, 1941-1946*, New York: Random House, 1975, p.495.

14) 王正華主編, 『蔣中正總統檔案:事略稿本』62, 臺北: 國史館, 2011, 241쪽.

15) Harry S. Truman, *Memoirs of Harry S. Truman. Volume 1, Year of decisions*,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1965, p.468.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문제의 쟁점은 적산처리에 대한 중미소 삼국의 해석차이에서부터 발생하였다. 중국과 미국은 적산처리문제에 있어서 전리품과 전쟁 배상이 갖는 의미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았고 또 중국은 자신들이 우선 몰수하고 나서 전승국이 공동으로 논의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반면, 소련은 적산에 대한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생각했고 점령지구에서 적에게 빼앗게 되는 전리품과 전쟁 비용등을 고려하여 참전국들의 논의를 거쳐 분배하게 되는 전쟁 배상을 분리하여 생각하고 있었다. 8월 13일 스탈린은 쑹쯔윈에게 소련군이 출병했던 모든 국가는 그 국가들이 모두 비용을 부담하였다. 그리고 당시 만주에는 이미 약 100만 명의 소련군이 출병하여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에 대한 비용을 중국에 요구하였다.¹⁶⁾ 이에 대해 쑹쯔윈은 우선 중소 쌍방이 조약을 체결하고 이후에 다시 몇 개 초안을 만들어 쌍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에서 소련군의 경비를 해결하자고 하였다.¹⁷⁾ 이는 분명 중소양국 모두 전쟁 배상과 참전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논의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중국정부가 우선 중국 내의 일본자산을 몰수하고 그 다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미소양국과 함께 논의를 통하여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에 따라 9월 1일 중국 외교부장 왕스체는 중국주재 소련대사에게 만주에 있는 일본의 자산은 모두 중국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알렸고,¹⁸⁾ 2일 중국 외교부도 중국에 있는 일본의 공사(公私) 자산을 몰수하기로 결정했다고 성명을 발표하였다. 또한 그와 동시에 미소 양국의 대사에게도 이를 통보하면서 협조를 요청하였다. 그 협조란 미소 양국이 일본에게 항복을 받고 접수한 중국 영토 내의 지역에서 일본이 경영한 상업,

16) W. A. Harriman and E. Abel, *Special Envoy to Churchill and Stalin, 1941-1946*, p.496.

17) 曹夢玲 譯, 「1945年中蘇莫斯科談判斯大林與宋子文會談記錄補遺」, 俄羅斯聯邦總統檔案館, 全宗45, 目錄1, 卷宗322, 82-91쪽. (中國社會科學院近代史研究所近代史資料編輯部, 『近代史資料』第118號, 北京:中國社會出版社, 2008, 183쪽에서 재인용)

18) 王世杰, 『王世杰日記(手稿本)第五冊, 臺北: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1990, 162쪽.

공장, 광업, 교통, 통신사업과 기타 자산을 잠시 보호하고 이들 적산이 훼손되거나 반출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었다.¹⁹⁾ 11일 미국은 중국의 성명에 동의를 한다고 회신을 하였으나 소련 측에서는 답신을 하지 않았다.²⁰⁾

소련이 답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두고 소련이 만주의 적산을 전적으로 전리품으로 보았는지 혹은 전후 배상으로 전중국이 분배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았는지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중국이 적산을 일괄 몰수하는 것에 그다지 동의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만주지역의 적산처리에 대한 소련의 태도에 장제스만큼이나 민감하게 반응했던 사람은 소련주재 미국대사 해리먼이었다. 그도 소련이 전리품에 관심이 크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는 8월 8일 트루먼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스탈린은 완전히 새롭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문제를 제출했다. 그는 일본 기업의 주식을 포함한 일부 일본의 자산을 홍군의 점령구내에서 소련이 취할 수 있는 전리품으로 요구했다.....만약 소련이 그들이 독일에서 취한 전리품의 개념을 중국에 적용한다면,그들은 장차 만주에서의 공업을 탈취하고 더 나아가 영원히 만주공업의 지배권을 취득하려고 할 것이다.²¹⁾

해리먼은 소련이 전리품의 명목으로 만주지역 전체 산업을 장악하려 한다고 보았다. 해리먼에 따르면 스탈린은 만주에 있는 일본의 공공자산이나 개인소유의 자산을 모두 소련 홍군이 취할 수 있는 전리품으로 보고 있었다.²²⁾ 스탈린은 포츠담에서 트루먼과 독일의 적산문제를 논의할 때도 독일의 상선까지 전리품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적 있었는데,²³⁾ 해리먼의 보고를 통해 트루먼은 스탈린이 만주에 있는 일본의 자산에 대해서도 동일한 적용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만

19) 秦孝儀主編,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卷五(下), 820쪽.

20) 秦孝儀主編,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卷五(下), 832쪽.

21) W. A. Harriman and E. Abel, *Special Envoy to Churchill and Stalin, 1941-1946*, New York: Random House, 1975, p.495.

22) Harry S. Truman, *Memoirs of Harry S. Truman. Volume 1, Year of decisions*, p.468.

23) Harry S. Truman, *Memoirs of Harry S. Truman. Volume 1, Year of decisions*, p.392.

주에 있는 적산은 포츠담에서 논의했던 것과는 다른 경우임을 알리기 위해 스탈린과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²⁴⁾ 이로써 미국 측에서도 스탈린의 만주에 있는 적산을 전리품으로 독점하고 싶어한다는 의도를 주목했음을 알 수 있다.

소련의 적산에 대한 의도는 중국과 미국 양측 모두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었다. 우선 중소관계에 있어서 전후 중소양국이 협의하기로 한 경제협력에 장애를 예견할 수 있다. 1945년 10월 17일 소련군 전권 대표 마리노프스키(Mashal Rodion Malinovskii)는 국민정부 동북행영(東北行營)의 경제위원회 주임위원인 장자아오(張嘉璈)에게 말하기를 “일본인이 운영한 공장을 모두 소련군의 전리품으로 간주하는 것 외에, 중국인과 일본인이 합작운영한 공장에 대해서도 모두 적산으로 간주해야 하는데 이는 이들 중국인들은 敵人과 협력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장자아오는 이에 대하여 “소련은 전리품의 명목으로 만주의 공업을 취하여 일본이 만주에서 점유했던 경제적 특수 이익을 계승하려 한다”고 말하면서 그는 소련의 이러한 태도는 일본의 제국주의적 태도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였다.²⁵⁾

1945년 11월 24일, 마리노프스키는 장자아오에게 다시 요구하기를, 모든 만주지역의 미화 100억 달러 이상의 공업설비는 소련의 전리품으로 삼아야 하고, 또 154종의 기업은 중소양국이 경제합작을 통해 공동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하였다.²⁶⁾ 그 후 12월 7일에 마리노프스키는 장자아오에게 다시 강경한 태도로 만주지역의 기업은 소련의 전리품이 되게 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면서, 만약 경제 합작문제가 해결을 보지 못한다면 소련의 철군시일도 예측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압박하였다.²⁷⁾ 소련은 이 때부터 노골적으로 경제적 이익문제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군사상의 도구를 내세워 위협하기 시작하였다. 소련의 출병 처음부터 경제적 이익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전리품과 경제합작이라는 두 사안을 철병이라는 군사적 압박으로 관철시키려 하고 있었다. 소련은 만주지역의 적

24) Harry S. Truman, *Memoirs of Harry S. Truman. Volume 1, Year of decisions*, p.468.

25) 姚崧齡編, 『張公權先生年譜初稿』上册, 臺北: 傳記文學出版社, 1982, 524쪽.

26) 秦孝儀主編,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卷五(下), 892쪽.

27) 秦孝儀主編,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卷五(下), 899쪽.

산을 전리품이라는 이름으로 취하게 되면 전승국간에 논의를 거쳐야 하는 배상금과 달리 즉시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소련은 이미 만주지역의 기계와 설비를 반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종 만주의 산업시설이 소련홍군의 전리품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후 전승국간의 논의에 있어서 소련이 적산을 독점했다는 사실에 대해 비난의 여지를 주지 않으려 했다고도 볼 수 있다

그에 비해 중국은 여전히 만주지역의 적산을 전리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전쟁 배상의 의미를 부여하여 처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장자아오와 소련 경제고문 슬라드코프스키(Sladkovsky)의 대화이다.

장: 소위 전리품문제는 배상문제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배상문제는 단지 양국정부가 논의 할 수 있는 범주의 것이 아니고 여러 정부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

슬: 전리품에 대해 각국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논의하는 것에 관해서는 찬성할 수 없다. 전리품은 현재 소련홍군의 수중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중국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을 뿐이다. 그 선택의 하나는 합작을 하여 계속 경영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들을 철저히 파괴하는 것인데, 현재의 공장을 남기는 것이 실로 동북인민의 이익이 될 것이다.²⁸⁾

이차대전 기간에 소련은 이미 미국이 중소양국 사이에 개입하는 것도 꺼렸지만, 전리품이라는 명목으로 만주지역의 적산에 대해 중국을 포함한 그 어떤 나라보다도 자신들이 우위를 점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소련은 이 문제에 관해서 줄곧 강경한 태도를 보였는데, 장자아오와 슬라드코프스키의 대화에서도 슬라드코프스키가 오만하고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중국 측은 오히려 소련과 계속적으로 전리품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결국 장자아오가 이끄는 동북경제위원회는 장제스의 지시에 따라 만주의 재산은 모두 중국의 소유라는 성명을 발표해 버렸다. 이에 대해 중국 주재 소련 대사인 페트로프(Appopn Petrov)는 항

28) 「蔣嘉璈主任委員與蘇聯經濟顧問斯拉德科夫斯基關於東北工礦合作問題談話紀錄」(1945年12月7日), 秦孝儀主編,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七編 戰後中國(一), 臺北: 中國國民黨中央委員會黨史委員會, 1981, 389-390쪽.

의를 하였고 장제스는 “외교적 경로를 통해 정식으로 논의하자”고 답변했을 뿐이다.²⁹⁾ 사실 「중소우호동맹조약」을 체결하면서 중소양국은 전후 경제협력에 관한 담판을 진행하기로 약속하였고 또 이미 출병한 소련군의 철수문제 등의 사안을 앞두고 있었는데 만주지역 적산처리가 걸림돌이 되어 버렸다. 전리품과 전쟁배상이라는 용어에 대한 입장 자체도 일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논의가 이어지자 중소양국의 우호적인 관계는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갈등을 현실화한 문제는 소련이 전리품으로 간주한 물품의 반출이었다.

Ⅲ. 소련의 중국 동북지역 공업설비의 반출

그러면 소련은 전리품으로써 만주지역 적산을 어떻게 취득하고 반출하여 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사실 소련군은 만주지역을 점령한 이후 우선 만주지역의 일본인 상공업계 인사를 체포하였다. 당시 체포된 만주중공업개발공사의 총재였던 다쓰노스케(高碓達之助)의 증언에 따르면, 소련은 우선 일본이 만주지역에 세운 각종 산업기기와 관동군을 위해 일한 기업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였고, 또한 이들 상공업계 인사들에게 소련군은 중소합작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중국 측과 협의 중인데, 당시 이에 관련된 산업에 종사했던 일본 측 기술 인력과 경험자들이 이들 합작회사에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알렸다.³⁰⁾ 그리고 더 나아가 10월 29일 만주중공업개발공사의 총재와 각 회사 대표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서를 보내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만주에 있는 각급 회사는 일찍이 관동군의 필요에 따라 일하였고, 그 회사들의 업무집행자인 우리들은, 장차 우리들이 가진 모든 자산에 대한 권리를 소련에 인계한다. 이들 회사의 자산은 그들의 사업소, 주택, 그리고 기타 각종 건축

29) 秦孝儀主編,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卷六(上), 23쪽.

30) 石井明, 『中ソ關係史の研究』,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90, 76-77쪽.

물을 포함한 것이다. 이들 회사의 명부와 소련에게 인계해야 하는 사업소 일람 표도 함께 동봉한다.³¹⁾

위에 인용한 문서에 근거하여 보면, 소련은 일본이 중국 동삼성에서 경영한 군수공업의 동산부문을 마땅히 소련군의 전리품이 되어야 하며 더불어 관동군을 위해 복무했던 공장들 또한 군수산업으로 간주하여 자신들에게 귀속시키려고 했다. 만약 소련이 주장한 대로 한다면, 만주지역 대부분의 전기, 석탄, 기계, 철강과 석유 등의 중공업부분은 모두 소련의 전리품이 되어야 했다.³²⁾ 사실 소련은 만주지역에 진입하여 일본에게 항복을 받은 직후에, 3천여 명의 기술인력을 파견하여 만주지역의 주요한 중공업 공장에서 기계 반출을 지휘하였는데 당시 그들은 말하기를, “일본 측의 공장장들이 이미 서명한 서면 증거에 따르면, 이들 공장은 군수품의 공여를 위해 일했고 특히 그것들은 소련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였다.³³⁾ 여기에서 소련 측이 말한 일본 측 공장장들이 제공한 증거자료는 바로 상술한 만주중공업개발의 총재와 각 회사대표들에게서 받은 문서를 말하는 것이며, 그들이 제공한 물자가 소련과의 전투에 사용된 것이었기 때문에 소련은 이것들을 자신들의 전리품으로 취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친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소련 경제 고문 슬라드코프스키는 만주지역의 일본 상공계 인사들에게 만주지역 공업자산을 넘긴다는 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 날짜가 바로 8월 29일이었다.³⁴⁾ 그러나 이들 동북지역에 있던 일본 상공계 인사들은 그들이 당시의 여러 가지 상황변화에 책임을 지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10월 29일까지 끌어왔다. 결국 소련은 그들이 서명한 날짜를 9월 17일였던 것으로 고치도록 요구했다.³⁵⁾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 보건대 소련은 출범 전부터 만주지역의 일본 적산처

31) 姚崧齡編, 『張公權先生年譜初稿』上冊, 548-549쪽.

32) 『關於蘇商談合辦東北工礦事業』(1946年1月2日), T. V. Soong Files, box.56, File.3 (Hoover Insitute Archives, Stanford University)

33) 『關於蘇商談合辦東北工礦事業』(1946年1月2日), T. V. Soong Files, box.56, File.3 (Hoover Insitute Archives, Stanford University)

34) 姚崧齡編, 『張公權先生年譜初稿』上冊, 548-549쪽.

35) 石井明, 『中ノ關係史の研究』,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90, 76-77쪽.

리를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실행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전쟁상황이 완료되자마자 소련군은 즉시 접수한 공장의 기기 반출을 진행할 수 있었다.

또한 다음과 같은 회유도 하면서 일본의 기존 인력을 자신들의 기기 반출에 참여시키기도 하였다.

우리는 이들 명부 중의 사업을 시작할 때, 모든 전문가, 기술자, 사무원, 노동자 등, 이들 사업에 관련된 공작자들에게는 어느 민족인지 묻지 않고 모두에게 직무를 부여하고 그 생명과 생활을 보증할 것이다.³⁶⁾

소련군은 시종 이들 공장에 대해 전리품이라는 용어를 적용하며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였다. 그들은 원래 공장의 운영에 참여했던 다수의 일본인 기술자들을 회유하여 결국에는 전쟁포로로 삼았고 이들에게 반출을 위한 기기와 설비 해체의 업무를 맡겼다.³⁷⁾ 그리고 소련군인과 소련에서 파견된 3000여명의 기술인력들에게 이들을 감시감독하도록 하였다.³⁸⁾

아래의 [표2]는 소련이 해체하여 반출한 공업기기의 가치와 그로 인해 생긴 생산능력저하가 어떠한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1947년 2월 폴리(Pawley)사절단의 조사보고서와 東北日僑善後聯絡處가 동북공업회와 공동으로 조사한 보고서의 내용에 근거한 것이다.

[표 2] 소련군이 반출하여 생긴 만주지역 공업설비에 대한 손실액과 생산저하율³⁹⁾

공업종류	폴리조사단의 조사보고		동북일교선후연락처의 조사보고	
	손실금액(미화)	생산능력저하율	손실금액(미화)	생산능력저하율
전력	201,000,000	71%	219,540,000	60%

36) 姚崧齡編, 『張公權先生年譜初稿』 上冊, 548-549쪽.

37) United States, Dept. of State Office of Historian,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Diplomatic Papers, 1945, vol.7, The Far East China*, Washiton D.C.: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9, pp.1030-1031.

38) 秦孝儀主編,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 第七編 戰後中國(一), 255쪽.

39) 秦孝儀主編,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 第七編 戰後中國(一), 274-275쪽.

석탄	50,000,000	90%	44,720,000	80%
강철	131,260,000	50-100%	204,052,000	60-100%
철도	221,390,000	50-100%	193,756,000	
기계	163,000,000	80%	158,870,000	68%
액체연료와 윤활유	11,380,000	75%	40,719,000	90%
화학공업	14,000,000	50%	74,786,000	50%
			59,056,000	33.5%
시멘트	23,000,000	50%	26,234,000	54%
비철금속과 광산	10,000,000	75%	60,815,000	50-100%
섬유	38,000,000	75%	135,113,000	50%
펄프와 제지	7,000,000	30%	13,962,000	50%
라디오, 전선전화	25,000,000	20-100%	4,588,000	30%
총계	895,030,000		1,236,211,000	

폴리조사단과 일교선후연락처가 조사한 손실금액에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생산능력 저하의 측면을 본다면, 두 보고서가 공통적으로 소련군이 반출하거나 훼손함으로써 만주지역에 남아 있는 공장은 거의 생산능력을 상실하거나 반감하였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만주지역 재건에 큰 장애를 초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업시설의 반출 외에도 일본이 만주 각 지역에 세운 은행에서 반출된 화폐, 귀금속, 유가증권등의 자산도 적지 않았다. 만주중앙은행 본점과 각 지역 지점에서 반출된 자산의 경우, 國幣, 일본은행권, 조선은행권, 대만은행권, 일본군용표 등의 화폐가 일화(日貨)717,118,059엔, 귀금속에서는 금괴 2,110,287.34g, 백금 32,401.55g 등이 있었다. 또한 공채, 사채, 주식을 합한 금액이 1,500,000,000엔이었다.⁴⁰⁾ 이는 만주중앙은행에서 소련군이 가져간 자산의 대략적인 가치였다. 만주중앙은행 외에도 만주흥업은행, 흥업금고, 상공금융합작사, 제도은행, 정금은행 등 각종 금융기관을 통해 가져간 화폐방면의 자산도 적지 않는데 만주중앙은행을 포함한 이들 금융기관의 화폐손실액 총액은 대략 812,478,059엔에 달했다.⁴¹⁾ 금융경제방면의 손실은 이에 그치지 않았는데 소련군이 이리

40) 秦孝儀主編,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七編 戰後中國(一), 309- 312쪽.

한 금융기관에 대한 약탈 외에도 약 97억 만주국 화폐에 달하는 군용표를 발행하였는데 이는 만주국 화폐 발행량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서 소련군은 그들이 점령한 곳에서는 이 군용표를 임시화폐로서 사용하여 각종 물자구입하였는데 이는 현지의 통화팽창으로 인한 물가상승을 부추겼다. 뿐만 아니라 소련측은 1946년 6월 1일 중국정부에게 남은 군용표를 회수해 달라면서 그 배상액으로 6258.1만위안(圓)을 요구하였다.⁴²⁾ 이처럼 소련군은 그들이 점령한 만주지역의 공광업 기계와 설비의 반출과 파괴로 전후 만주지역 복구에 물질적 장애를 초래했을 뿐 아니라 금융적 약탈과 군용표의 남발과 회수를 통해 만주지역 경제질서에 혼란을 야기하여 만주 지역의 재건의 싹을 잘라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소련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중국 국민정부는 소련군의 약탈로 묘사했으며 소련이 이렇게 한 원인으로 만주의 공업은 이미 상당한 규모를 갖추고 있어서 그 존재 자체를 시기하였다고 때문이라고도 주장하였는데, 만주 지역의 공업방면의 근대적 성과와 대조적으로 소련본국의 공업은 전쟁으로 상당히 손실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소련은 이를 복구하기 위한 기반을 만주지역에서의 약탈로 채우려고 했다는 것이다.⁴³⁾ 그래서 중국정부는 이러한 소련의 행위에 대해 1949년 유엔제소안에서 출병전에 미리 치밀하게 계획된 제국주의적 약탈이며, 「중소우호동맹조약」의 제6조 ‘조약국은 양국의 편리와 부흥을 가속하고 세계 번영에 공헌하도록 하기 위해 전후 서로에게 가능한 모든 경제원조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에 위배이라고 비난했던 것이다.⁴⁴⁾

41) 秦孝儀主編,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七編 戰後中國(一), 311쪽.

42) 中國第二歷史檔案館編, 『中華民國史檔案資料匯編』外交卷, 南京:江蘇古籍出版社, 1986, 224쪽.

43) 秦孝儀主編,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七編 戰後中國(一), 255쪽.

44) 「蔣首席代表廷獻於1952年1月26日在聯合國大會第六屆會政治委員會發表之聲明」, 『中國向聯合國控訴蘇聯(續)--聯合國大會第六屆會「蘇聯違反一九四五年八月十四日中蘇友好同盟條約及聯合國憲章威脅中國政治獨立與領土完整及遠東和平案」』, (駐聯合國代表團印, 뉴욕, 1952. 3), 10쪽.

IV. 소련의 중국 동북지역 적산 처리에 대한 중미소의 갈등

본절에서는 전리품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만주지역 산업설비 반출 문제를 둘러싼 각국의 입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는데, 이는 소련이 만주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미국에 대해서 신경을 썼고,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1945년 여름, 중국과 소련은 담판을 할 때, 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 미국을 언급하였다. 그 중 하나는 전리품에 관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국민정부군의 다롄(大連)을 통한 만주 진입에 관한 논의에서 미국의 수송지원에 대한 것이었다. 미국이 표면적으로 나서서 이 두 문제에 대해 개입하지는 않았지만, 중소양국이 이 두 문제를 논의할 때 줄곧 미국이 언급되었고, 소련은 미국이 언급될 때마다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중소양국은 왜 미국을 언급하고 있을까? 이에 대한 양측의 의도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중국은 미국의 개입을 통한 소련의 견제에 그 목적이 있었고, 소련은 미국의 개입을 우려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 중심에 있는 미국은 동아시아의 상황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1945년 10월 20일 미국 국무원은 미국의 극동정책을 발표하였고 이 때 극동담당국장인 빈센트(John C. Vincent)가 뉴욕 외교정책협회에서 행한 연설을 인용하였는데 빈센트는 중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정책은 통일되고 강력한 합작할 수 있는 국가의, 민주원칙에 따라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정부를 격려하고 그에 협조하는 것이다. 중국이 처해 있는 어려움의 근본에 여전히 경제개혁, 특히 토지개혁이 필요하다.....중국의 건설이 이러한 노선을 취한다면 미국은 반드시 자본과 공업기술을 중국에 제공할 것이다.....중국은 우리와 소련의 극동지역의 관계에서 교량의 지위에 있다....⁴⁵⁾

즉 미국은 중국을 계속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와 정치상의 어려움을 해

45) 王正華 主編, 『蔣中正總統檔案:事略稿本』63, 臺北: 國史館, 2011, 249-250쪽.

결하여 강력한 통일국가가 되도록 도울 뿐 아니라 미소양국간의 교량으로서 극동지역이 미소양국 중 어느 한 나라에 편향되지 않도록 하여 동등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의미를 전달한 것이다. 통일되고 안정된 민주적 국가가 출현하도록 지지하는 것이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정책이었고 미국은 중국 국민정부가 그것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지지하고자 한 것이다.⁴⁶⁾ 빈센트는 또한 다음과 같은 주장도 하였다.

미, 소양국은 모두 극동지역에 중요한 이익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소련의 이익을 인정한다. 우리는 소련 또한 우리가 그 지역에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이익을 인정하기를 희망한다. 미국은 장차 소련과 극동지역 지위와 관련된 각 항의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공정한 태도를 유지하며 소련이 극동지역에서 갖는 지위를 인정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소련으로 하여금 미국의 극동지역에서의 각 목표를 이해하게 하여 어떠한 평화적 국가의 목표와도 어울릴 수 있게 하고자 한다.⁴⁷⁾

인용한 빈센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미국은 극동지역에서의 이익과 세력범위를 공유하려고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이러한 입장은 대체로 루즈벨트의 친소정책을 계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루즈벨트(Franklin D. Roosevelt)대통령의 대소정책은 전시 합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고 전후세계의 평화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소련과의 협작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루즈벨트를 뒤이어 대통령직을 계승한 트루먼은 비록 루즈벨트의 친소정책을 그다지 찬성하지는 않았으나 전쟁기간 뿐 아니라 전쟁 종결 후에도 그대로 계승하고 있었다. 트루먼 정부는 소련과의 협력을 통한 세계평화와 미국 이익의 병존을 구상하였는데, 중국 동북지역에서 문호개방을 통한 경제이익 또한 미국의 중요한 이익의 하나였다. 그러나 트루먼의 이러한 생각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고, 특히 극동지역의 문제를 처리하면서부터 소련과의 갈등이 드

46) United States, Dept. of State Office of Historian,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Diplomatic Papers, 1945, vol.7, The Far East China*, pp.745-747.

47) 王正華 主編, 『蔣中正總統檔案:事略稿本』 63, 250쪽.

러나기 시작하였다. 그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전리품에 관한 해석으로 인한 것이었다.

포츠담회담 중에 스탈린은 전쟁수행 중에 군대가 취한 물품을 전리품으로 간주하며, 독일의 상선 또한 전리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⁴⁸⁾ 이는 독일에 대한 것이었지만 스탈린은 일본의 만주지역 적산에도 동일한 공식을 적용하고 싶어했다. 소련이 만주에서의 경제적 이익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은 중국 뿐 아니라 미국도 알고 있었으나, 1946년 초에 가서야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해리먼은 전리품의 명목으로 소련이 원하는 대로 만주 지역 일본의 자산을 취하게 내버려두는 것이 이후 미국의 만주 지역에 대한 문호개방정책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대소 강경론자였던 해리먼은 일본이 운영하던 만주지역 공광업 자산문제를 주목하며 끊임없이 중국정부관계자, 혹은 소련외교부 관계자와 접촉을 하면서 이 문제가 미국의 이익에 주게 될 영향을 분석하였고, 또한 본국에도 보고하였다. 1946년 1월 말, 충칭(重慶)의 장제스와 만난 자리에서 장제스가 전리품 문제에 관하여 소련에게 양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본국에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내가 보기에 이것은⁴⁹⁾ 반달리즘과 절도와 같은 경우로 보였다. 산업장비는 이 지역에서 매우 가치 있는 것이지만, 제거된다면 상대적으로 작은 가치이다. 또한 스탈린은 알타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참전의 대가로 제시한 요구은 완전한 합의에 의해 충족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하여 이 상황에까지 이른 것이다. 이것은 러시아인들이 나중에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시도로 알타의 협의와는 다른 경우이다.

만약 지금 소련의 요구에 대해 중국이 이들 중요한 산업에서의 이익을 포기하고 소련의 전리품으로 양도하는 것을 우리가 묵인한다면, 러시아는 만주의 산업과 경제를 지배하게 될 것이고 장차 미국의 상업이익과 문호개방정책 전체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⁵⁰⁾

48) Harry S. Truman, *Memoirs of Harry S. Truman. Volume 1, Year of decisions*, p.392.

49) 소련이 동북지역 일본 공광기업의 설비를 반출하거나 파괴한 행위를 말한다.

50) W. A. Harriman and E. Abel, *Special Envoy to Churchill and Stalin, 1941-1946*, New York: Random House, 1975, p.539.

해리먼은 소련의 전리품 요구가 이미 스탈린과 루즈벨트가 얄타에서 나누었던 소련의 대일전 참전에 관한 조건을 넘어서는 것으로 소련이 전후 만주지역을 자신의 세력범위로 만들어 독점하려고 의도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 특히 이것은 전후 만주지역에서 문호개방을 통해 이익을 유지하고자 하는 미국의 정책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대체로 이 때부터 트루먼은 루즈벨트의 친소정책과는 다른 소련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1946년 2월 15일, 미국주재 중국대사 웨이따오밍(魏道明)은 미국 대통령 트루먼과의 회견에서, 소련이 만주지역의 적산을 전리품으로 삼겠다고 고집한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트루먼은 “미친 생각”이라고 답하였다. 이 때에 웨이따오밍은 트루먼에게 배상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소양국 간에 전리품을 둘러싼 갈등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⁵¹⁾ 1946년 3월 1일 미국은 성명을 발표하여 소련과 기타 여러 나라의 정부에 만주지역 전리품의 처리에 관해 미국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성명에 따르면, 미국은 이미 소련에게 소련이 만주지역의 일본 군용기업을 전리품으로 보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고, 어떤 나라가 만주의 ‘전리품’에 대해 비밀협정 혹은 기타 협정을 체결하더라도 미국은 이를 승인할 수 없다는 것과 일본의 해외 자산은 마땅히 배상의 범주에 포함시켜 각 전승국들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통보하였다.⁵²⁾ 이는 2월 15일 웨이따오밍이 트루먼을 만났을 때 전달한 중국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이고 연합국의 일원인 영국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⁵³⁾, 만주지역에 있는 일본 자산의 처리에 대해서는 소련을 제외한 나머지 동맹국은 뜻을 같이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중에 중국은 특히 미국을 통해 소련을 견제하고자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동맹국으로서 ‘도의적’ 차원에서 전적으로 중국을 지지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루즈벨트대통령이 당초 전후 구상을 할 때, 경제방면에서는 자유무역

51) 王正華 主編, 『蔣中正總統檔案:事略稿本』64, 619쪽.

52) 秦孝儀主編,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七編 戰後中國(一), 247쪽; 王正華 主編, 『蔣中正總統檔案:事略稿本』65, 41-42쪽.

53) 秦孝儀主編,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七編 戰後中國(一), 248쪽.

을 실행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미국의 전쟁 기간의 경제 목표 또한 어떠한 제한이 없는 세계경제무역체제를 이루는 것이었다.⁵⁴⁾ 그래서 미국의 대외정책은 전쟁기간이나 전후시기에도 모두 문호개방정책을 견지했으며 트루먼 또한 문호개방정책에 저촉되지 않는 적당한 범위에서 스탈린과의 대립은 피하려고 하였다. 때문에 미국은 중소양국의 전후 초기의 상황에 대해서 불개입태도를 취하려 하였으나, 몇 가지 문제, 특히 전리품을 포함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소련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는 전후 국제관계가 경제적 문제와 정치적 문제를 분리해서 다룰 수 없는 상황에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치적 입장과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고려한다는 점에서는 소련도 그다지 다르지 않았다. 다만 소련은 처음부터 미국의 개입이나 미국과의 세력 양분의 구상은 없었던 것 같다. 장자아오의 판단에 따르면 소련은 국민정부가 미국의 원조를 얻어 만주지역에 진입하는 것에 불만을 표했을 뿐 아니라, 미국의 세력이 만주지역에 침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바라지 않는다고 보았는데,⁵⁵⁾ 경제상으로는 군사 정치상으로 소련은 극동지역에서 미국과 세력범위와 이익을 나누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다. 특히 경제력에 있어서 미국은 소련에 앞서 있었기 때문에 소련은 미국의 금전적 영향력이 만주지역에 침투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즉 미국의 관심은 문호개방을 통한 자유무역을 실현하기 위한 평화를 주장한 것이었으나, 소련은 미국이 선진적 경제역량을 이용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게 될 것을 우려하였던 것이다.

소련은 장단기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미국을 배제하고자 하였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만주지역에서 미국의 역량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였고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전리품의 명목으로 눈 앞의 이익인 만주 공광업의 이익을 다른 나라의 개입이 없을 때 빠른 시간 안에 획득하고자 한 것이다. 그 중에서 만주 공광업의 이익 획득은 소련의 전후 재건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긴급하게 진행하였다. 때문에 상술

54) Joyce and Gabriel Kolko, *The Limit of Power: The World and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1945-1954*, N.Y.: Happer & Row, 1972, pp.84-86.

55) 姚崧齡編, 『張公權先生年譜初稿』上冊, 537쪽.

한 바와 같이 전쟁상황이 완료되자마자 소련군은 그들이 접수한 공장의 기계 설비를 반출하는 작업에 착수하여 소련군의 전리품이라는 명목으로 취하였다.

전쟁이 종결되기 직전 스탈린이 중소담판에서 전리품에 대한 논의를 나중으로 미루겠다고 했을 때, 중국은 동맹국들이 공동의 배상위원회를 구상하여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하였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소련이 배상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한 채 자의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소련은 오히려 이러한 국제사회의 입김이 작용하기 전에 먼저 전리품이라는 명목으로 만주지역 일본의 자산을 취할 구상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소련은 만주지역에 미국의 영향력이 개입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이러한 소련의 입장이 미국이 구상한 전후 동북아에서 취하고자 하는 국가 이익과 충돌된다고 판단되자 미국은 전리품문제에 대해 강경한 반응을 보이게 되었다.

V. 맺음말

전시 연합국이었던 미소양국은 알타회담을 통해 소련의 대일전 참전과 그 대가에 대해 합의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1945년 여름 중소양국은 「중소우호동맹조약」으로 다시 우호관계를 약속하였다. 그러나 1949년 중국은 소련이 이 우호동맹을 약속을 깨뜨렸다고 유엔에 제소하였다. 제소 내용은 크게 제국주의적 침탈과 소련과 중공의 결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제국주의적 침탈은 다시 경제적 침탈과 영토적 침탈로 나눌 수 있다.⁵⁶⁾ 본문에서 다루었던 내용은 경제적 침탈 중에서 일본의 만주지역 자산처리에 관한 것이다. 소련은 이를 전리품이라는 명목으로 독점하려고 구상하였고, 중미 양국은 전쟁배상으로 간주하여 전승국이 공동으로 논의하여 처리하려고 하였다. 특히 중국은 8년의 전쟁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 당사국이었으므로 자신들의 영토에 있는 일본자산에 대한

56) 정형아, 「동맹에서 제소: 중화민국의 소련제소안 내용연구」, 『역사와 실학』 제 57집(2015.8), 318쪽.

우선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믿었다. 소련군의 출병 전에 이 부분에 대해 사전 안전장치의 필요를 느꼈던 중국은 모스크바 담판에서 먼저 언급을 하였으며, 중국을 부당하지 않게 대우하겠다는 스탈린의 명확하지 않은 약속에 중국은 안심하였다. 그러나 소련군은 동북으로 출병한 전리품이라는 명목으로 공업기기와 설비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반출하였으며, 심지어 파괴하기까지 하였다. 이 때 주목해 볼 것 중의 하나는 중미소 삼국은 ‘war booty’, 즉 모두 전리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용어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소련은 ‘war booty’라는 용어를 그야말로 전쟁 중의 노획물의 의미로 취하려고 하였고, 중국과 미국은 전후 전승국이 논의해서 나누어야 하는 전쟁배상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소련은 만주지역의 일본자산을 취하는 데 있어서 관건은 시간임이라고 생각했고 중국 국민정부군이 나 미군이 만주지역에 진입하기 전에 신속히 일본의 자산을 접수하고 반출하였다. 그러나 중미 양국은 각 점령지에서 어떤 일국이 적산을 선점했어도 이를 전승국이 모여서 논의를 거쳐 처리하는 것으로 믿고 있었다. 이러한 입장의 차이가 있었음에도 소련은 선점하고 반출해 버림으로써 재논의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고, 소련이 반출한 물품에 대한 정확한 집계를 내는 것도 어려웠기에 다만 폴리조사단과 東北日僑善後聯絡處의 조사 보고서를 비교함으로써 대략적으로 소련이 동북에서 엄청난 양의 기계설비와 이익을 취했을 것으로 추측할 뿐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소련의 이러한 독단적인 행동에 대해 미국이 보인 태도이다. 미국의 전시와 전후의 소련에 대한 정책은 대체로 루즈벨트가 구상한 것으로 루즈벨트를 계승한 트루먼과 그의 각료들은 친소적이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루즈벨트의 구상을 따르고 있었다. 다만 유일하게 소련의 행보를 주목하고 경계하는 사람은 당시 소련 주재 미국대사였던 해리먼이었다. 해리먼은 대소 강경주의자로서 소련이 중국에서 취하고자 하는 이익에 대해서 줄곧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그는 중소담판에서 쑹쯔원과 스탈린이 나눈 전리품의 논의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였고 전후 초기 소련이 전리품이라는 명목으로 만주의 일본자산을 반출하는 것에도 경계를 나타냈다. 그러나 그가 주목한 것은 소련이 얼마나 많은 것을 취해 갔느냐는 사실보다도, 소련이 만주지역을

세력범위화할 것에 더 관심을 쏟았다. 그는 소련의 만주지역에 대한 이권과 영향력의 확대가 결국 미국의 문호개방정책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했다. 트루먼이 해리먼의 이러한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소련에 대해 항의하게 되는 것은 1946년 초였는데, 트루먼은 소련이 장기적으로 미국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만주지역에서의 소련의 거침없는 행보에 미국은 대체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었다. 즉 미국은 자신들의 목표인 문호개방정책에 대해 위협을 느끼기 전에는 도의적 차원에서 연합국의 구성원들이 서로의 이익을 해치지 않을 것, 특히 전쟁에 있어서 가장 피해가 컸던 중국의 이익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미국이 지지를 해 줄 것이라는 중국의 기대에 그다지 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냉전의 기원을 연구한 학자 중에서 개디스(John Lewis Gaddis)는 냉전은 결코 미소양국 중에 어느 한 쪽이 야기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양국이 국내외적으로 세력과 영향력을 확대해 가는 가운데 발생한 것이라고 하였다.⁵⁷⁾ 전시 연합국으로 행동을 함께 했던 미소양국은 극동지역에서는 대체로 1946년 상반기를 거치면서 대립적 태도를 드러내기 시작하였는데, 그 원인이 이데올로기적인 갈등에 있다고 하기 보다는 국가의 경제적 정치적 이익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만주지역에서는 일본의 자산처리도 한 몫을 하였다. 개디스는 또한 스탈린이 그 자신과 정권, 조국, 이데올로기를 위한 안전보장을 전후 목표로 삼으면서 이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두었다고 말한 바 있다.⁵⁸⁾ 전후처리에 있어서 스탈린은 이데올로기보다는 정권과 국가 이익을 우선에 두었다고 보이며 전후 소련의 복구를 위해서 만주지역 적산은 소련이 쟁취해야 하는 중요한 목표였음은 확실한 사실이다. 트루먼은 소련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소련은 제국주의적 목적을 위해 전쟁으로 산산조각이 난 이웃의 이익을 탐하는 듯”하다고 말하였다.⁵⁹⁾ 트루먼의 이 말은 소련이 만주지역에서

57) John Lewis Gaddis, *The United States and the Origins of the Cold War, 1941-1947*,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2, pp.48-71.

58) 존 루이스 개디스지음, 정철, 강형규옮김, 『냉전의 역사: 거래, 스파이, 거짓말, 그리고 진실』, 서울: 에코리브르, 2010, 26쪽.

59) Harry S. Truman, *Memoirs of Harry S. Truman. Volume 2, Years of Trial and Hope*,

반출한 적산은 총 8억달러 이상이고, 여기에 그 후 경제합작이라는 명목으로 취한 이익을 합산하면 만주지역 전체 공업의 80% 이상을 취한 것이라며 소련이 중국에서 제국주의적 침탈을 자행했다고 유엔에 제소한 중국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처럼 전후 극동지역에서의 갈등은 각국의 경제적 이익이 주요한 요인의 하나로 작용했다는 개디스의 주장처럼 냉전은 결코 미소양국 중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야기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며, 여기에 더하여 미소양국의 경제적 이익이 확대해 나가는 가운데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각국이 힘들게 얻어낸 1945년의 평화는 다시 균열을 맞게 된다. 그 원인에는 이데올로기적 차이도 배제할 수 없겠지만, 이보다는 전후처리 과정에서 자국의 이익 추구라는 전제가 더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중국 국민정부가 「소련제소안」에서 주장한 ‘제국주의적 침탈’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나타난 제국주의적 현상과 동일시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러나 냉전이 이데올로기적 분열과 국가 이익의 추구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당시 중미소가 만주지역 적산을 둘러싸고 보인 갈등들은 제국주의의 변용으로 나타난 냉전의 초기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자료집

- 王正華 主編, 『蔣中正總統檔案:事略稿本』63, 臺北: 國史館, 2011.
- 王正華 主編, 『蔣中正總統檔案:事略稿本』64, 臺北: 國史館, 2011.
- 中國第二歷史檔案館編, 『中華民國史檔案資料匯編』外交卷, 南京: 江蘇古籍出版社, 1986.
- 秦孝儀主編,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三編 戰時外交(二), 臺北: 中國國民黨中央委員會黨史委員會, 1981.
- 秦孝儀主編,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七編 戰後中國(一), 臺北: 中國國民黨中央黨史委員會, 1981.
- 秦孝儀主編,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卷五(下), 臺北: 中正文化基金會, 1978.
- 秦孝儀主編,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卷六(上), 臺北: 中正文化基金會, 1978.
- 秦孝儀 主編,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卷七(下), 臺北: 中正文化基金會, 1978.
- 『中國向聯合國控訴蘇聯(續)--聯合國大會第六屆會 「蘇聯違反一九四五年八月十四日中蘇友好同盟條約及聯合國憲章威脅中國政治獨立與領土完整及遠東和平案」』, 駐聯合國代表團印, 뉴욕, 1952. 3.
- United States, Dept. of State Office of Historian,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Diplomatic Papers, 1945, vol.7, The Far East China*, Washiton D.C.: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9.

2. 논문 및 저서

- 오카베 마키오 지음, 최혜주 옮김, 『만주국의 탄생과 유산: 제국일본의 교두보』, 서울: 어문학사, 2014.
- 정형아, 「동맹에서 제소로: 중화민국의 소련제소안 내용연구」, 『역사와 실학』 제 57집(2015.8).
- 존 루이스 개디스지음, 정철, 강형규옮김, 『냉전의 역사: 거래, 스파이, 거짓말, 그리고 진실』, 서울: 예코리브르, 2010.
- 王世杰, 『王世杰日記』(手稿本)第五册, 臺北: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1990.
- 王永祥, 『雅爾達密約與中蘇日關係』, 臺北: 東大, 2003.
- 姚崧齡編, 『張公權先生年譜初稿』上册, 臺北: 傳記文學出版社, 1982.

中國社會科學院近代史研究所近代史資料編輯部, 『近代史資料』第118號, 北京:中國社會出版社, 2008.

山本有造著, 『「滿州國」經濟史研究』, 名古屋: 名古屋大學出版會, 2003.

石井明, 『中ソ關係史の研究』,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90.

John Lewis Gaddis, *The United States and the Origins of the Cold War, 1941-1947*,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2.

Joyce and Gabriel Kolko, *The Limit of Power: The World and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1945-1954*, N.Y.: Happer & Row, 1972.

Harry S. Truman, *Memoirs of Harry S. Truman. Volume 1, Year of decisions*,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1965.

W. A. Harriman and E. Abel, *Special Envoy to Churchill and Stalin, 1941-1946*, New York: Random House, 1975.

Abstract

The Conflicts among China, the U.S. and the Soviet Union over the Enemy Property in Northeast China in the Early Postwar Years

Jung, Hyung-Ah*

US president Roosevelt promised the condition of sending a military expedition under the Yalta Pact and Chinese president Chaing Kai-shek approved most of the provisions of the Pact through the Sino-Soviet Treaty of Friendship and Alliance. Howeve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hina intended to clarify the Japanese properties in Northeast China that were not specifically discussed in the Yalta Pact - for example, the heavy industry facilities established by Country of Manchuria, which is the puppet state of Japan - before the dispatch of the Soviet Union troops for fear of that the Soviet Union would have power over the facilities. However, during the Sino-Soviet negotiation, the Soviet Union avoided to give a clear answer and rather assured China not to treat the country unfairly. Since the pro-Soviet policies were inherited from the Roosevelt administration at that time, the U.S. government did not take seriously the Soviet Union's interest into the Northeastern industrial facilities. However, U.S. ambassador William A. Harriman to the Soviet Union, who was a hardliner on the Soviet

* Professor, Tamla Culture Research Institute Jeju National University.

Union, was keeping his eyes on the movements of the dispatched Soviet troops. The dispatched soviet troops to Northeast China preoccupied the heavy industry properties and other financial assets of Japan and exclusively took them out of China under the name of war trophies after being surrendered by Japan.

In this regard, two points are noteworthy: One is the interpretation of the term 'war trophies'. The three states of China, the U.S. and the Soviet Union used the same term 'war trophies' but with different interpretations. While the Soviet Union interpreted the term 'war trophies' as the things that can be taken by the belligerents as they want at the occupied territory, China and the U.S. interpreted the term as the war reparations that are jointly discussed and distributed by the victorious country. However, before the discussion, the Soviet Union already took out over 80% of the Japanese assets from Northeast China. Another point is the issue of how to interpret the conflicts between the U.S. and the Soviet Union on Northeast China, which started to be raised from early 1946. As Truman gave up the pro-Soviet policies by Roosevelt in early 1946, many researchers have been considering it as the start of the Cold War by focusing on the fact that the ideological conflict between the U.S. and the Soviet Union began to emerge. However, it is considered that the open-door policy served as a key factor of the strong stance of the U.S. against the Soviet Union in the conflict between China and the U.S. and the Soviet Union occurred during the disposal of the enemy properties in Northeast China. In other words, the conflicts of national interest between the U.S. and the Soviet Union were likely to occur as Harriman argued that the open-door policy may be deterred, which has been pursued by the U.S. for economic expansion to overseas; Truman accepted the argument, causing conflicts with the Soviet Union; and the Soviet Union tried to monopolize the war trophies for economic benefits for national reconstruction. Therefore, it can be considered that the break of peace in

Northeast China in 1945 was more caused by the imperialistic elements appeared as the nations pursued their own interests rather than the ideological elements.

Key Words : disposal of enemy property, war booty, war trophy, war reparations, national interest, imperialism.

교신 : 정형아 632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E-mail : yinyuka@naver.com)

논문투고일 2016. 04. 30.

심사완료일 2016. 06. 10.

게재확정일 2016. 06. 13.

